

경남도, 청년농업인 창업 부담 줄인다

스마트팜·노지시설·체협·가공까지 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지원



경상남도는 도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돕기 위해 '2026년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스마트팜 시설구축, 체협·가공 창업 등 초기 투자 부담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는 것이 특징이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

인이며, 총사업비는 133억 규모로,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의 비율로 지원된다.

특히, 청년농업인에게 가장 수요가 높은 시설농업 분야에는 온실 신·개축, ICT 기반 스마트팜 장비, 에너지절감·효율화 시설 등을 지원하며, 개소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해 대규모 시설 투자 부담을 크게 낮춘다. 노지농업 분야는 농지 성·절토, 배수시설 등 영농에 필수적인

농지 조성과 생산 기반 시설을 지원하며, 개소당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체협·가공 분야는 농산물 등을 활용한 체협·가공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축 비용을 지원하며, 개소당 최대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창업 분야에 대해 개소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해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의 실현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2026년부터는 시설하우스 설계기준을 완화해 기존 내재해형 등록규격 외에도 국가기술자격 구조기술사 검토를 통해 지역별 적설·풍속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시공이 가능하도록 사업 지침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설계·시공의 유연성을 높이고, 청년농업인의 시설 구축 비용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신청기간은 2026년 1월 9일까지이며,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시군 농정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성룡 기자

부산시 제3회 해상스마트시티 포럼개최

해상스마트시티 실현 위한 핵심 기술 및 연구 성과 주제 발표 및 토론



부산시는 17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제3회 해상스마트시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포럼)는 시와 해상스마트시티 조성 민관합동 전담팀(TF),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가 함께 마련했다.

토론회(포럼)는 해상스마트시티 분야 전문가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상스마트시티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 및 연구 성과'를 주제로 개회식, 3개 분과(세션)별 발표 및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개회식은 ▲시 환영사 ▲부산시의회 축사 ▲김성태 해상스마트시티 조성 민관합동 전담팀(TF) 위원장의 기조연설로 포럼의 시작을 알린다.

이후 3개 분과(세션)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발표 및 토론을 이어간다.

[제1분과(세션)] '해양 부유식 인프라 산업의 새로운 기회 활용'을 주제로, 기후위기와 다양한 국제적(글로벌) 요인에 따라 부상하는 해양 부유식(浮遊式) 기반(인프라)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

전 전략과 정부의 역할을 살펴본다.

[제2분과(세션)] '부유식 해상도시 계류 기술'과 '해상 부유식 구조물 신재생에너지 활용 기술'을 주제로 해상스마트시티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에 대해 논의한다. [제3분과(세션)] '부유식인프라연구단(FLORA): 다목적 해상 모듈라 부유플랫폼 기술'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시는 다양한 의견과 논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상도시 조성에 대한 추진 전략을 더욱 구체화하고, 향후 사업의 단계별 이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해상스마트시티'는 미래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도시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해상도시 조성 사업이다. 임경모 실장은 "공유된 기술적·정책적 성과들이 해상도시의 실질적인 추진 동력이 되고, 해양 신산업 분야에서 부산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우유 기자

울산~경산 고속도로 건설에 힘 모은다

울산시와 경상북도, 경산시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울산~경산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에 뜻을 모으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울산시는 16일 경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울산~경산 고속도로 건설 공동선언문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김두겸 울산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조현일 경산시장, 조지연 국회의원, 안문길 경산시의회 의장 등과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세 지자체는 이날 공동선언문 채택, 17일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에게 선언문을 전달하고,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년)'에 사업이 반영되도록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공동선언문에는 울산권과 대

구·경북권을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묶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년)' 반영을 위한 공동 대응, 산업·물류 경쟁력 강화, 주민 교통 편의 제고, 향후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정책 대응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울산~경산 고속도로'는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서 경산시 진량읍을 잇는 총연장 50km, 4차로 규모로 계획돼 있다. 도로가 개설되면 산업물동량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돼 울산 및 경북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 투자 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개항에 대비하여 울산 시민들의 공

항 접근성도 크게 나아질 전망이다. 울산과 경북을 잇는 관광지대(벨트) 이동 시간 단축 효과도 기대돼 울산권과 대구, 경북권을 연결하는 광역권 핵심 교통축으로 평가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경산 고속도로는 울산권과 대경권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중요한 광역 도로망으로 울산시가 추진 중인 '울산고속도로 도심 지하화 사업'과 연계될 경우, 도시 경쟁력과 물류 체계 개선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며 "정부가 적극 검토해 반영해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16일 '2025년 세계인권의 날 기념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이호근 기자

대형사업 정책펀드 활용 협약, 금융권 협력강화

정책펀드 활용 민간투자 강화를 위한 道·시군, 금융기관 협력회의 개최



경상북도는 15일 서울 신라스테이 마포에서 양금희 경제부지사 주재로 '금융기관과의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지역활성화 투자 유공자 표창 ▲대형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정책금융 관련 전문가 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지역 내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양금희 경제부지사의 전수로 도지사 표창이 수여되었다.

이들은 2024년 출범한 비수도권 대상 정책펀드인 지역활성화투자펀드가 경상북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표창이 수여되었으며, 주요 표창 자료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백명현 과장, 지역활성화투자개발원 이정환 원장,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활동희 실장, ㈜강동그린에너지 유수경 대표이사이다. 도는 올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선정사업 2건을 성공적으로 착공

한 바 있으며, 최근 출범한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하여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전략 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서 내년 상반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핵심사업인 영덕의 고래볼 특급호텔 건립, 1시군 1호텔 프로젝트, AI데이터센터 구

축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체결된 업무협약은 그간 진행의 결과로, 제드앤컴퍼니와 국내 최고의 호텔브랜드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활성화투자펀드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1시군 1호텔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대일인터내셔널하스피탈리

티그룹과 호텔사업 추진을 위한 경쟁력 강화 업무협약도 추진해 개발사업의 협력관계도 강화했다. 포함의 글로벌 AI데이터센터 사업의 경우 경상북도와 NeoAI Cloud가 함께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구조로 재설계하고 국민성장펀드까지 유치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마지막 전문가 강연에서는 지역활성화투자개발원의 김삼기 박사가 '정책펀드와 지역개발사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성공사례와 정부 주도의 재정투자가 지닌 구조적 한계와 정책적 시사점을 공유했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경상북도는 민간과 함께 투자할 수 있는 구조를 먼저 설계하여 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일에 집중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윤석 기자

울주군, 유니세프로 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

올해 12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4년간 자격 유지...아동의 4대권리 보장

울산 울주군이 유니세프(UNICEF)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y)'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모든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누리며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의미한다.

이번 인증은 6개월 간의 서면심사와 대면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됐으며, 인증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2029년 12월 11일까지 4년

간이다.

특히 울주군은 당초 2028년 12월을 목표로 추진하던 인증 시기를 3년 앞당겨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

앞서 군은 2023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등 아동의 권리를 군정 전반에 반영하기 위해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적극적으로 조성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5대 평

가영역의 기준에 부합하는 기본적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정책 결정을 위한 근거 확보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아동의 참여와 권리 교육 △행정서비스의 효과적 조정 △아동친화적 공간 조성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울주군이 아동권리 교육 운영 과정에서 울주군민의 인식 현황 및 교육 수요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중장기 교육 계획에 반영하는 등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

했다.

이순걸 군수는 "이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울주군이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 울주군의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진정한 아동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주군이 상북면 덕현리 산240-19 일대에서 울주경찰서, 울주군 자율방재단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 폭설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이호근 기자

고층건축물 화재예방 총력 범어W아파트 간담회 개최

대구소방, 대구 고층건축물 대상 간담회 개최 및 소방시설 집중 점검



대구소방안전본부는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수립한 '고층 건축물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수성범어W아파트에서 고층 건축물의 화재 안전관리를 강

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대구소방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대구에는 고층 건축물(30층 이상 또는 120m 이상)이

총 132개소가 있으며, 이 중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은 3개소이다.

고층·복합건축물의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피 및 대응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대형 인명피해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간담회는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해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관계자 중심의 예방·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피난안전구역 운영 및 관리의 실효성 강화 △통합방재실 중심의 상황 전파·대응체계 고도화 △임주자 및 관리주체 간 협력 및 책임체계 구축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간담회 후 엄준옥 본부장은 소방시설, 피난안전구역, 옥상층 인명구

조공간 등 주요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소방시설 관리 실태와 대피·대응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엄준옥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고층 건축물은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평소 철저한 예방관리와 초기 대응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소방은 고층 건축물 화재 안전조사의 일환으로 초고층 건축물 3개소에 대해 12월 중 긴급 점검을 완료했으며, 내년 6월까지 나머지 129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내년 2월 말까지 전통시장의 화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화재 예방 점검에 나선다.

한윤석 기자

의령군 봉수면 기초생활거점 ‘도란도란센터’ 준공해

의령군은 봉수면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건립된 '도란도란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에는 지역 기관·사회단체 관계자와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센터 개관을 함께 축하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주민 생활에 필요한 복합 기능 거점을 조성해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

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도란도란센터는 '중심가로길 정비', '다나루쉼터 조성', '한지문화마당 조성' 등 봉수면 일원에서 추진 중인 관련 사업들과 연계해 조성된 주민 공동 이용시설이다. 이번 사업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국비 28억 원, 도비 3억 6천만 원, 군비 8억 4천만 원 등 총 40억 원이 투입됐으며, 이 가운데 약 24억 원이 센터 건립에 투입됐다.

센터는 봉수면 대한로 1175-6 일원에 연면적 7282㎡,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다목적강당과 공유주방, 체력단련실, 동아리방, 카페 등 주민들의 다양한 여가·문화·복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다. 의령군은 도란도란센터가 주민 간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하고, 문화·예술·복지 기능을 아우르는 지역 생활 거점으로서 봉수면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삼식 도란도란센터장은 "봉수면에 다양한 여가활동과 문화예술크를 아우르는 다목적 공간이

마련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며 활력을 더하는 공간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령군은 의령청소년문화의집이 전국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2020년과 2022년에 이어 2025년에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안정적인 운영 성과와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선 노력을 인정받았다.

최성룡 기자